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41〉

長蘆慈覺禪師 坐禪儀 (장로자각선사 좌선의) ②

竊爲坐禪 乃安樂法門
절위좌선 내안락법문
而人多致疾者 蓋不善用心故也
이인다치질자 개불선용심고야
若善得此意則 自然四大輕安 精神爽利
약선득차의즉 자연사대경안 정신상리
正念分明 法味資神 寂然淸樂
정념분명 법미자신 적연청락

가만히 보건대 좌선은 이래서 안락법문인데 사람들이 많이 병을 얻게되는 것은 모두 다 (애써 무엇을 이루려고) 용심을 잘못한 까닭이다.

만약 이 뜻을 잘 살펴 행한다면 저절로 사대육신이 홀가분하고 편해 정신은 상쾌하고 또렷해지리니 바른생각 분명하면(삿된 생각에 끌리지 않으면) 법의 맛이 갈수록 정신을 살찌게 하여 늘 고요한 가운데 맑디 맑은 즐거움 있으리라.

若已有發明者 可謂如龍得水 似虎靠山
약기유발명자 가위여룡득수 사호고산
若未有發明者 亦乃因風吹火 用力不多
약미유발명자 역내인풍취화 용력부다
但辨肯心 必不相賺
단변긍심 필불상잠

나온 후에는 일체시에 항시 방편에 의지해 선정의 힘을 간직하되 마치 젖먹이 돌보듯하면 곧 정력을 쉬이 성취하리라

夫禪定一門 最爲急務
부선정일문 최위급무
若不安禪精慮 到應裡 總須茫然
약불안선정려 도차리 총수망연
所以 探珠 宜靜浪 動水取應難
소이 탐주 의정랑 동수취응난
定水澄靜 心珠自現
정수징청 심주자현

무릇 선정일문이 가장 급한 일이니 만약 안선정려가 안되면 불문에 들어와서도 모든게 아득할 뿐이기 때문이다.

고로 마음구슬 찾으매 의당 풍랑이 고요해야 할 것이니 물결치면 얻기 어렵다.

선정의 물이 맑고 깨끗하면 마음구슬은 절로 드러난다.

故 圓覺經 云無碍淸淨慧 皆依禪定生
고 원각경 운무애청정혜 개의선정생
法華經 云在於閑處
법화경 운재어한처
修攝其心 安住不動 如須彌山

"삿된 생각 물리치면 마음구슬 드러나"

만약 이미 맛을 보았다면 가히 용이 물을 만난 것 같고 맹호가 산중에 깃든 것 같으리라. 만약 아직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또한 바람으로 불을 댕긴 것 같아 힘쓰게 많지 않을지니

다만 즐거운 마음으로 가려 나가면 반드시 되물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然而道高魔盛 逆順萬端
연이도고마성 역순만단
但能正念現前 一切不能留礙
단능정념현전 일체불능류애
如佛經 天台止觀 圭峰修證儀
여능엄경 천태지관 규봉수증의
具明魔事 預備不虞者 不可不知也
구명마사 예비불우자 불가부지야

수섭기심 안주부동 여수미산
是知超越凡聖 必假禪緣
시지초월범성 필가정연
坐脫立亡 須憑定力
좌탈입망 수빙정력

고로 〈원각경〉에 이르기를 '걸림없는 청정지혜는 다 선정에 의지해 난다'하며 〈법화경〉은 '한가한 곳에 있어 그 마음 거둬잡아 닦되 안팎 경계에 부동하기를 수미산 같이 하라'하였다.

이를 알라. 범성을 뛰어넘으려 할 진대 반드시 선정의 힘을 빌릴 것이요.

좌탈입망하려 할 진대 모름지기 선정의 힘에 의할 것이다.

그러나 도 높으면 마군도 치성하여 역·순경계가 만가닥이다.

다만 바른 생각 늘 현저케하면 일체 경계에 능히 걸림이 없을 것이다.

저 〈능엄경〉 천태지관과 규봉수증의에 마군의 장난을 갖추어 밝혀 놓았으니 미리 염려하지 않았다고 모른다 할 수 없을 것이니라.

一生取辦 尙恐蹉跎 況乃遷延 將何敵業
일생취변 상공차타 황내천연 장하적업
故 古人云若無定力
고 고인운약무정력
甘伏死門 掩目空歸 宛然流浪
감복사문 엄목공귀 완연유랑
幸諸禪友 三復斯文 自利利他 同成正覺
행제선우 삼복사문 자리이타 동성정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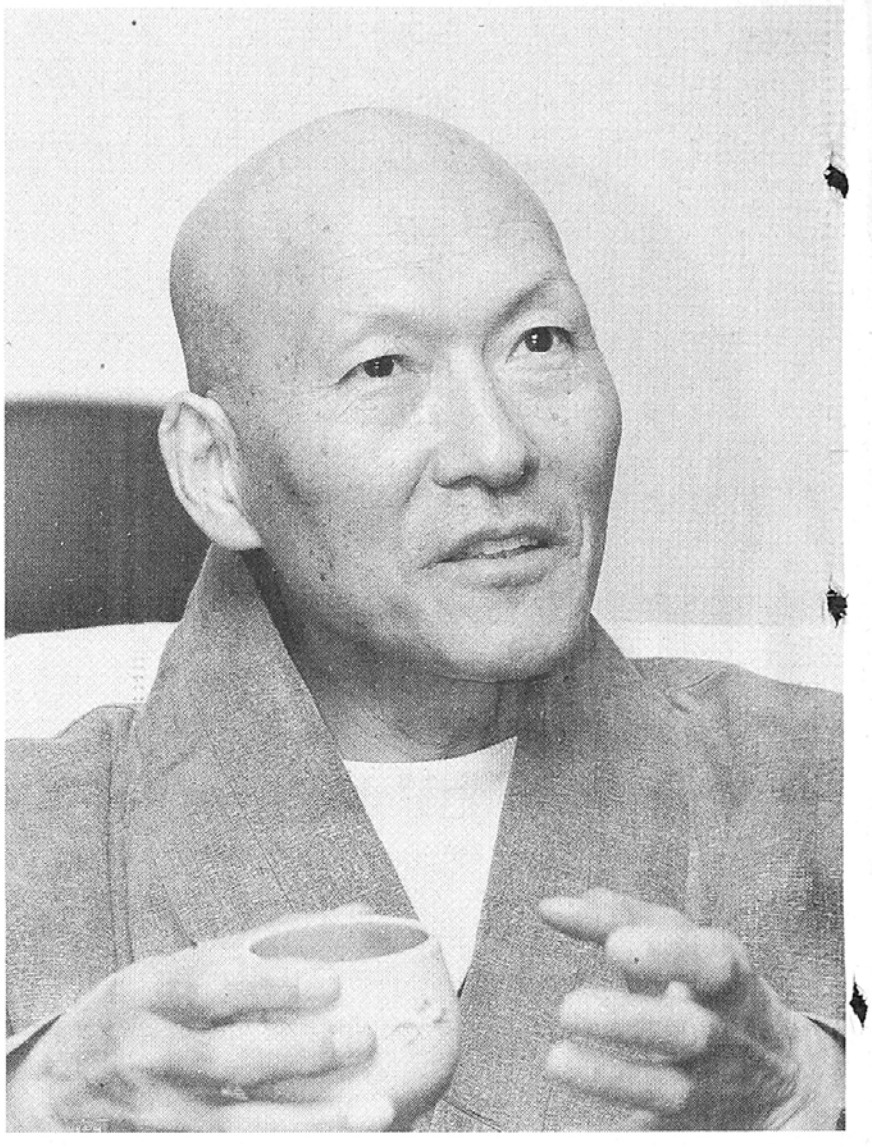
한생에 다 기울여 취하고 가려도 오히려 때를 놓지고 빗나갈까 두려운데 하물며 늑장부릴 지경이면 장차 무엇으로 업을 대적하랴. 고로 옛사람 이르되 만약 선정력 없으면 죽음의 문앞에 엎드려 눈가리고 속절없이 돌아가매 유랑길 완연하다 하였다. 바라건대 모든 도반은 이 글을 재삼 보고 자리이타하여 함께 정각 이룰지어다.

龍眼

송년지상법석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법정스님 〈송광사〉



약력
- 1935년 生
- 54년 송광사에서 효봉스님 은사로 득도
- 58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 졸
- 동국대 역경원 역경위원, 송광사 조계총림 수련원장 역임
- 맑고향기롭게 운동본부 회주
- 저서로 〈무소유〉 〈산방한담〉 〈서 있는 사람들〉등 다수.

며칠 전 점심을 하려고 단지를 열었다가 쌀봉지가 하나 달랑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쌀이 단지 속에 가득 있을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고마움이 그 순간 느껴졌습니다. 또 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고마운 것인지 쌀의 존재가 새삼 되새겨 지기도 했습니다. 행복이란 이런 겁니다. 넘치듯 가득 차 있으면 소중한 것을 모르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조금 모자라는 듯 하면 그 존재의 소중함, 고마움을 깨닫게 되고 그 존재가 있으므로 해서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자는 남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生)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남보다 가진 것이 적어 힘들게 살더라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밝게 살아가는 이가 진짜 부자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유마경〉에 보면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만족할 줄 알라.

넉넉함을 아는 것은 부유하고 즐거우며 편안하다.

"넘치듯 가득차 있으면 소중함을 모릅니다 조금 모자라는 듯 할때 비로소 감사를 배웁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록 천상에 있을지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이가 행복도 누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자 다른 처지에 놓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그릇에, 제 처지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을 사는 지혜의 첫걸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령,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이들은 주위 사람들까지도 기분 좋게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자신은 물론 이웃까지도 편안하게 해 줍니다. 하지만 항상 불평불만에 가득 차서 사는 이들은 늘 얼굴을 찌푸리고, 신경질을 내다 보니 자기와는 상관 없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럼 그의 주위에는 점점 사람들이 멀어져 갈 것이고 그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좀체로 자신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신도가 노스님을 찾아 뵙고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기 먹고, 술마시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그른 일입니까?"

그러자 노스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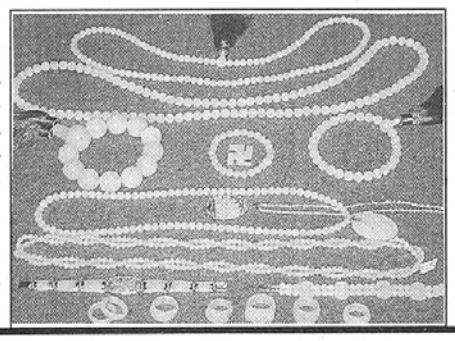
"먹고 마시는 일이야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니 중에게 와서 물을 일이 아니오. 다만 먹고 마시는 일을 절제하면 당신은 복을 쌓게 될 것인즉 그리 아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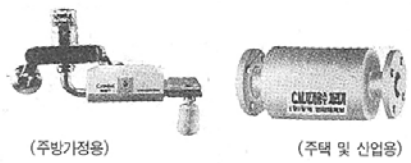
노스님의 이 말씀은 복이라는 것이 어디서 갑자기 호박 덩어리처럼 굴러 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복스런 일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박복한 짓을 하면 굴러 들어오던 복도 돌아서 나갑니다. 복이라는 한자의 모양에서도 작고 소박한 것에서 복이 온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옷의 변(衣)에, 한일 자(一), 입구 자(口), 그리고 밭전 자(田), 옷 한 벌에 먹을 만큼의 양식을 거둘 밭 한때기 있으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살면서 헤아릴 줄 알아야 할 것은 이 일이 내게 복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가게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이것이 내게, 우리 처지에 꼭 필요한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돈이 있다고 해서,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산다는 식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내 삶을 소비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과소비 풍조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라고 개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의 덕을 배워야 할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란 물질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주어진 가난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미덕으로서의 맑은 가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청빈, 거룩한 가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취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단출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르는 말입니다. 옛날 선비들은 이런덕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그래선지

상하 관세음의 사상과 생애 김현도 편저
수행자의 필독서! 대성 관세음보살 일대기
圓書出版 三養
TEL:(02)733-7911~2 FAX:(02)723-2462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신경통 고혈압 당뇨 심장병 불면증 등 난치병을 치유
머리는 맑아지며 의식 집중력과 판단력 증대, 피로감 감소, 놀라운 컨디션으로 禪과 기도에 좋습니다
眞氣
* 선물용으로 적격

* 眞三 옥산가에서만 판대함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0.9%, 심장질환자 90.9%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춘천연옥제품을 착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온반지 84%, 온돌 걸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졌다. ('93. 2. 17)
한국일보
강원白玉 두통·불면에 「효험」
반지 84% 목걸이 88% 치료효과 세계서 유일한 치료 — 2년 집무리 라길
서울일보
「春川産 白玉성인병에 卓效」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吳是空 合掌

정부기관(공업시험소) 실험필
21세기를 향한 확실한 사업체

(주방가정용) (주택 및 신업용)
전국 각 시 단위에서 영업을 하실 30대 젊은 영업소장님을 초빙하며 특히 불자님을 우대합니다.
사업취지
1. 환경보존에 이바지하고
2. 국민보건 향상 (신진대사 촉진, 성인병 예방, 세포보호, 노화 방지 등)에 일익
3. 건축물 및 산업체 또는 원예 및 양식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수도관 및 보일러의 파이프에 스케일을 방지하는 크리스탈(M.D.T)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상사입니다.
문의처:자화육각수기상사
02) 278-2924~5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그리움
무덥던 그 여름도 가고
가을 들녘
바람결에 흔들리는
코스모스의 청초한 멋스러움!
고운 자태의 터질 것 같은 그리움이
아픈 사연으로 속세를 방황하는
목마른 독경 소리 되어
홀로 아픈 가슴 묻고
소슬한
바람은 가슴 속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아리도록 젖어드는 목탁소리
기다림의 끝벼랑에 서서
외로운 고독으로 나를 감싸안을 때
그리움으로
떠오르는 정겨운 얼굴은
나의 빈가슴으로 채워질 때
어느새 가슴 한 구석
가만히 새겨지는 그리움 하나
사랑하는 마음 만나고 싶은 마음
이자임 결혼 연구원으로…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농협온라인구좌 : 112-01-021221 예금주 이 영 숙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